



3GPP SC/OP 회의 요약

류창호

TTA 차세대이동통신프로젝트그룹 위원
에릭슨코리아 차세대이동통신 사업본부 부장

I. 회의 개요

- 장소 : Philadelphia, 미국
- 회차 및 일자
제11차 SC/제10차 OP 회의 : 2001년 4월 19일 ~ 20일
- 참석자
한국대표 참석자 : 위규진 박사(전파연구소)외 10명
 - 표준화단체 : ARIB/CWTS/TIA/TTA/TTC
 - 기술위원회(TSG) 의장단
 - MRP 대표 : CDG(CDMA Development Group)/MWIF(Mobile Wireless Internet Forum)/WMF(Wireless Mobile Forum)
 - 참관기관 : 3GPP/OHG

배경 : 중국의 CWTS가 제기한 “UIM ID 관리권”에 대하여, 지난 회의에서 “서비스기술위원회(TSG-S)가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과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업무를 2001년 2월까지 종결하며, 간사는 이와 연관된 법적 상담을 한다”에 관한 보고 및 이번 회의결과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SC는 UIM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지침을 제공함.
- UIM ID 관리는 3GPP2의 고유영역 이외 업무임을 인지하고, 국지적인 기관보다는 범세계적인 외부 기관이 업무를 맡아야 함.
- 모든 참여 OP가 3GPP2의 간사를 UIM ID를 관리하는 자로 지명하고, 3GPP2의 Logo없이 업무를 처리하기로 결정함.

II. 회의 주요 사항

1. UIM ID 관리

2. OHG 회의 및 ITU-T SSG 회의

배경 : 2001년 3월 OHG 회의에서, 현 3GPP와 3GPP2간의 기술적인 차이를 논의하였고, IMT-2000의 ALLIP 망에선 하나의 공통된



ALLIP 망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문을 작성하였음. 이를 기초로, ITU-T SSG가 책임을 가지고, Harmonization을 이루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Liaison을 제출하였음.

결론 : ITU-T SSG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은 인정되나, 많은 SDO가 3GPP 및 3GPP2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3GPP와 3GPP2가 직접 대화를 통하여 "Harmonization"을 유도함이 바람직함.

3. 기술위원회간 조정(TSG Coordination)

배경 : 각 기술위원회(TSG)간 원활한 기술 작업 연계와 향후 3GPP2의 업무의 일관성을 위한 임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요약보고서가 이번회의에서 논의되었음.

- 결론 :
- 제출된 보고서는 인지, 승인되었고,
 - 다음 회의까지 추천된 사항을 시행하고, 결과를 검토하기로 함
 - 필요에 따라 해당 Working procedure를 수정.

4. 1XEV-DV 진행사항 논의

배경 : 1XEV-DV에 대한 임시 평가작업반의 기술평가 방안을 위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 논의중인 제안사항은 :

- Nortel사 : iflex
 - LGE(LG전자), LSI, Lucent, QUALCOMM 및 Samsung(삼성전자) : L3QS
 - CWTS : LAS-CDMA
 - Nokia, Motorola, Texas Instruments, 및 Philips : 1XTREME
- 기술표준의 완성일은 아직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

결론 : 위의 사항에 대하여, SC 회의에서 아래의 사항이 토의되었음.

- 임시 평가작업반 보고에 의하면, 평가항목 (Performance criteria)은 완성되었으나, 현재 쟁점은 "supplement channel"임.
- 담당 분과위원회(TSG-C WG5)에서 기술 평가 논의가 완료되면, 해당 기술위원회 (TSG-C)에서 기술표준을 개발, 완성하는데 3 ~ 9개월이 소요될 예정됨.

TTA 및 연관 SDO들은, 위의 제안된 4가지의 1XEV-DV들에 관하여, "Family concept"으로 인해 이미 많이 존재하는 기술규격들을 고려하여, 1XEV-DV는 "Single and Harmonized"된 1xEV 규격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함.

5. 문서번호 일관성

배경 : 3GPP2의 문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SDO 및 관련 기술위원회 등이 참석하여 임시 회의(JEM(Join Expert Meeting))를 개최하였고, 결과보고서를 OP 회의에 제출하였음.

- 결론 : 아래의 4가지 사항이 권고되었음.
- 동일한 3GPP2 문서번호 구조
 - Revisions, Versions 및 Addendum 사용
 - 3GPP2 WPD에 적용
 - 3GPP2 결과문서에 대하여, 참여 SDO가 동일한 문서번호 적용

제출된 보고서는 승인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Working procedure를 수정하기로 함.

6. 재정분과위원회 보고

재정분과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2001년 총 예산은 1,389,000 USD이며, 참여 SDO의 필수 분담 고정비(35,000 USD)를 제외하고, 각 SDO의 참여 회원수에 따라 변동배분된 금액을 부

담하게 됨. 아래는 2001년 각 SDO 분담액임.

- ARIB : -\$5367.20
- CWTS : \$11,141.73
- TTA : \$94,441.70
- TTA : -\$61,794.31
- TTC : -\$44,554.56

- 3G CDMA
 - 상표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IMT-2000 CDMA 표준 언급시 사용
- WCDMA와 TD-SCDMA
 - 위의 기술을 3G CDMA로 간주

7. 기타 사항

1) CDG(CDMA Development Group) 보고내용

- CDG회원사 및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CDMA망 진화의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5 ~ 7년의 장기 망 발전을 논의하는 소모임을 구성.
- 현재 CDMA 3G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들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명칭을 권고, 사용하기로 하였음.
 - CDMA2000 Naming(cdma2000)
 - 1XRTT, MC 1x의 사용을 자제하고, 1X, 1XE, 3X 사용시, CDMA2000 1X, 1XE, 3X 사용함을 권고.


2) IPv6

- IPv6가 3GPP2의 MRP로 가입·신청하였으며, 차기 회의에 초청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만들기로 함.

3) Symposium for cdmaOne and cdma2000 International Roaming

- TTA가 2001년 10월 22 ~ 23(잠정안) cdma- One과 cdma2000의 국제 Roaming 관련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있음을 통보하였고, 많은 지지를 받았음.

4) 차기 회의

- 3GPP2 제12차 SC/ 제11차 OP 회의 : 2001년 7월 26~27일, 서울 

이동통신 3사, CDMA 2.5세대 본격서비스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최고 10배 가량 빠른 속도로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CDMA2000-1X(2.5세대 이동통신)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통신프리텔과 한통엠닷컴이 합병한 KT프리텔(KTF)은 5월 2일부터 서울, 인천 및 수도권 위성도시, 대전을 기점으로 CDMA2000-1X 상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KTF는 오는 7월부터는 CDMA2000-1X서비스 지역을 전국 광역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LG텔레콤은 5월 1일부터 서울, 인천, 부산 등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97개 주요 도시에서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전국망 구축을 완성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서울을 비롯 전국 23개 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도 오는 7월부터 전국 81개 시로 서비스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각 업체의 CDMA2000-1X 서비스 이용료는 '패킷요금제'가 적용돼, 문자 정보는 패킷(512바이트)당 6.5원, 멀티미디어 정보는 2.5원이 부과된다. 기존 이동 가입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전용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